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붐 조성 온힘

전북중기청은 설 명절 지역 전통시장 활력 찾기 붐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상인회, 유관기관, 중소기업 단체 등과 함께 19일 대형마트가 있는 6개시에서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총력전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내외적 혼란 및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대형마트 방문 고객들의 전통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3.0의 가치(협업) 실현 및 실질적 정책효과 활동 효과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설 장보기에 한발 앞서 민관합동(정부·지자체·상인회·유관기관·민간단체·대기업) 구성 230여명이 대형마트 앞 및 시내중심가 등에서 차별화된 캠페인으로 붐 조성을 선도했다.

도내 기관장 참여 6개시에서 합동 캠페인 전개 온누리상품권 홍보 리플릿·장바구니 나눠 줘

또한 효과적인 붐 조성을 위해 설 장보기에 앞서 선제적 홍보를 진행했고, 전통시장 방문 고객이 타지역이 아닌 대형마트, 시가지 등 내실화를 기했으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유도 및 협업을 통한 규모화를 꾀했다.

이번 추가 참여한 전북권 정부기관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고용부전주지청장, 전주세무서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전주우체국장, 통계청전주사무소장, 북전주세무서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전주기상지청장, 전주완산소방서장, 덕진소방서장 등이다.

특히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KT 전북고객본부 6개 지점, 전북기계공

고, 지자체.시장상인회, 소진공 5개 지역센터 등 총 36개의 기관·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매서운 추위의 날씨에도 어깨띠를 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홍보리플릿 및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을 안내하고 방문·이용을 독려했다.

또한 전주지역에서는 전통시장내 명절 장보기 및 오찬 등을 병행하면서 전통시장 알람이 역할에 적극 앞장섰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이번 행사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의 근간인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붐 조성, 그리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동반상생 등을 위해 오늘과 같이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 활동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중기청은 매 명절을 앞두고 우리지역 다수기관.단체와의 협업과 지역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대형마트 앞과 시내 중심가 등에서 차별화된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노력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북지역 전통시장과 고객 유입과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되고, 2017년도의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지역 기관.단체들과 더불어 지역민들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 기부자 모임인 전북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객 기부자 모임에 이름 올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이 지난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 기부자 모임인 전북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33호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가입식에는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김동수 전북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전북최초 기부자 김홍식 회장, 신동식아너 및 전북은행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은행장실에서 가입식을 개최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평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은행 은행장으로서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변함없는 도민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가입식 자리에서 임용택 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을 계기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관심을 갖고 나눔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늘어 행복 바이러스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신규사업 도전하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진공 전북본부는 2017년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중진공 전북본부,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 지난해 314개 업체 대상 1250억원 자금 집행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으며,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 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정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

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전년 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063-210-9922)로 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희망센터, 수시 입주모집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수시 입주모집을 실시한다.

희망센터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7월 개소해 저비용 창업공간 제공, 마케팅·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지원, 각종 컨설팅 및 교육, 박람회 참가 및 선진우수기업 탐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도우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센터(☎063-717-1300)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농협-에너지공단, 농촌 태양광 보급 사업설명회

농협은 19일 상생관에서 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농촌 태양광 보급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구현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농촌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농협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또한 농협 경제지주 에너지 사업부에서는 농협의 농촌 태양광 사업 추

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태양광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농협은 기자재 공동구매, 시공업체 선정, 농업인 대상 사업설명회 운영, 사업인허가 대행·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대행, 사업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전주사랑의 집 기부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전주사랑의 집 등을 찾아가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주사랑의 집은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 수녀님과 함께 60여명의 생활인들이 거주하고, 생활인들의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사회복지기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며,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재용 기자

“AI 차단방역 함께 힘써주세요”

농진청, 설 맞아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은 국민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 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등 가축질병 방역에 주의를 당부했다.

귀성객들은 고향의 가금사육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농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발과 의복 등을 미리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 내 사육장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가 드나드는 상황이므로 병원체를 묻혀오지 않도록 철새 도래지 방문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은 AI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도록 하며, 귀국 시에는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들여오지 않는다.

/안재용 기자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다.

필수 인원과 차량만 출입하면서 장바구니와 의복 세척·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차량을 빌려오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농장내부로 들어갈 때는 전용 신발과 의복 교체, 손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매일 가금의 상태를 관찰하고, AI 감염 증상(산란을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을 보이면 즉시 각 시·도(☎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로 신고한다.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AI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절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 모두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